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성과와 과제

Tendency and Future Study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Research

이문진*, 이연주**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Mun-Jin Lee(sky99722@hotmail.com)*, Yeon-Ju Lee(sport-freeman@hanmail.net)**

요약

이 연구는 1996년 한국에 소개된 이후 최근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연구동향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수행의 문제와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ISS와 RISS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으며, 총34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I형(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소개 및 제언 연구), T형(해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연구), U형(단일차원 분석을 이용한 양적연구), M형(다차원 분석을 이용한 양적연구), Q형(질적연구), S형(구조모형을 이용한 변인간의 관계연구)의 6개 연구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까지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단일차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해외에서 개발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를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 타당성의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의 연구흐름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연구방법과 연구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른 추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에 적합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연구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 연구동향 | 전문화 척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study trend and achievement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introduced to Korea in 1996 and recently started to be discussed a lot, and to state the problems and future development. Data related to recreation specialization were collected by using the database of KISS and RISS and 34 studies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type I-introduction and proposal, type T-study tendency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in foreign countries, type U-quantitative studies using uni-dimensional approach to recreation specialization, type M-quantitative studies using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recreation specialization, type Q-qualitative studies, and type S-variable relations using SEM. One of the problems found in the studies is that recreation specialization is still analyzed by using uni-dimensional approach to recreation specialization. Second, measures directly translated from foreign studies need to be verified the validity. In addition, domestic studies tend to simply follow foreign studies. Lastly, the studies lack variety(diversity) of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ers. The authors of this study argue that researchers must develop measures appropriate to Korean culture and diversify the research subjects and study methods.

■ keyword : | Recreation Specialization | Tendency of Research | Specialization Scale |

I. 서론

여가(leisure)가 인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가학자들은 여가와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해왔다. 여가는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통한 경험적인 요소와 이를 통한 자기성찰과 재창조의 시간이라는 복합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가는 그 시대의 사회적 특성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성과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 중심 사회에서 여가중심 사회로 전환되어지는 사회풍토가 형성되면서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여가 중심 사회에서는 여가를 선택적 차원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10][22].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 즉, 신체적, 정신적, 질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일상적인 여가활동 보다 큰 만족과 즐거움 나아가 제2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가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30].

이러한 관심보다 일찍이 Bryan[37]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이론(recreation specialization)을 제시하였는데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달단계를 거치며 그러한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행동양식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특성을 규명하려 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일반인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연속체’[37]로 정의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을 연구하는 국내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으로 실제로 국내에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관광학, 여가학, 체육학 분야의 학회지를 살펴봐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라는 개념을 다루거나, 이 개념을 이용하여 여가레크리에이션 행위나 태도를 고찰한 논문 최근에서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5].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의 경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가 1970년대 후반 Bryan[37]에 의해 그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이론과 방법론 및 경험적인 연구 모든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46]. 양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약 30여 명 이상의 학자들이 JLR(Journal of Leisure Research), LS(Leisure Sciences), JPRA(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과 같은 미국의 주요 여가레크리에이션 학회지에 40여 편 이상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개념은 또한 등산, 낚시, 캠핑, 사냥, 탐조, 보트타기, 요트타기 등 다양한 종류의 야외(outdoor)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었다[20].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획일화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념에 대한 정의의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행동 분석에 대한 단일 요인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38][48]. 하지만 행동 개념의 단일 요인은 다른 개념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중 요인을 적용한 연구[44][42][46]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초기의 단일차원 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참가빈도, 과거경험정도, 금전적인 투자, 사용하는 장비유형, 보유한 장비의 수 등의 행동적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37][48][40]. 몇몇 연구에서는 생활의 중심성(centrality), 여가활동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의 수준, 개인의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중요도,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수준 등의 태도(Attitude)의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McIntyre와 Pigram[45]은 제품의 관여도 개념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여(enduring involvement)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했다. 하지만 이후의 많은 스포츠 및 여가 학자들은 전문화 정도를 다원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자들의 심리적 변수를 제외하고 행동적 변수만으로 레크

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할 때는 왜곡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40][45]. 이로 인해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전문화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측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Scott과 Shafer[47]는 기존의 단일차원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측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Bricker와 Kerstetter[36]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경험수준, 기술수준과 능력, 생활의 중심성, 지속적인 관여, 그리고 장비와 경제적 투자라는 5개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였으며, McFarlane[43] 또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Scott과 Shafer[47]는 행위의 집중, 기술과 지식, 헌신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Lee와 Scott[42]의 연구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해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박세혁[5]의 레저스포츠 분야에서 전문화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에 의해 소개된 이후 주영환[26], 이진형[20], 이연주[15]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해외 연구동향을 소개하면서 간헐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승철[13][14], 이연주[15] 등이 연구를 이어왔으며 최근 2년간 비교적 많은 연구들[17][29][34][30] [18]이 보고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점 고찰과 개선을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부분을 찾아보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연구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측면의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특성을 밝힘으로써 차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관련 연구주제와 연구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 연구동향 파악에 앞서, 해외 연구의 동향을 주영환[26], 이진형[20], 이연주[15]의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는 해외 연구의 흐름 변화와 국내연구 동향의 비교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후 분석에 사용될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3명의 연구자가 연구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분류된 연구들을 토대로 유형별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였고, 끝으로 국내연구의 문제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이용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학술논문은 총 32편이 이용되었다. 학술지 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여가활동 전문화’, ‘전문화’, ‘recreation specialization’으로 검색한 논문들 중 연구주제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관련 있는 33편을 선별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관련 학위논문은 1편만 검색되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총 34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회별, 년도 별 논문의 출간 편수와 연구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분석 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학술논문의 자료를 분석하는 특성에 따라 여가전공 교수 1명과 여가전공 박사 1명, 여가전공 박사 과정 1명, 총 3명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에 있어서 각 연구 분석 방법에 맞추어 구조화 시킨 다음 연구유형에 따라서 I, T, U, M, Q, S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를 통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구분하고 이후 내용적 분류를 통해 세부분류를 실시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내용적 분류를 통해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를 소개하는 형식의 I(introduce)형, 연구 동향을 분석한 T(tendency)형, 전통적 방식의 질적연구인 Q(qualitative)형으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에서는 사용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의 종류에 따라 단일 요인척도연구를 사용한 U(uni-dimensional)형과 다요인척도를 사용한 연구M(multi-dimensional)형로 나누었고 다요인척도 연구 중 구조모형을 사용한 연구를 따로 분류하여 S(structural equation model)형으로 분류하여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분석결과와 신뢰도 확인을 위해 Borg와 Gall[39]이 제시한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논문에 대한 변인별 분류 및 연구자간 확인을 하는 평가자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확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1차 분류분석 과정에서 총 33편의 논문이 평가자간 일치치를 보였으며(일치도 약 97%), 불일치된 논문(1편)은 재협의를 통해 일치시켜 최종 연구동향 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부분에 대한 연구 분석이 끝난 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기능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관련 연구접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각 변인별 빈도수와 백분율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해외연구 동향

Bryan[37][38]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일반인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연속체로서, 여가활동 참가 시 사용되는 장비(equipment)와, 기술(skill), 그리고 활동장소(setting)의 선호양상에 의해 표출된다.”고 제안하였다. 단일 차원적 전문화의 정의와는 달리 Scott과 Shafer[47]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란 무엇보다 여가활동 참가자들의 행위(behavior), 지식과 기술(skill & knowledge), 그리고 심리적 개입(psychological commitment)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전(progression)되어 가는 발전적 과정(developmental process)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세 차원의 전문화가 각기 다른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과거의 경험이나 투자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과정으로 보고, 행동적 개념을 토대로 개념화하였다[48][49].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차원에만 의지 할 경우의 과거 경험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이유 때문에 현재 심리적 몰입도나 생활양식에서 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자들[41]이 등장했다. 과거 경험이 풍부해도 현재에는 더 이상 행위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활동에 몰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적 측면과 함께 심리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행동과 심리의 두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McIntyre와 Pigram[45]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기본 고리의 개념화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구성개념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차원만을 고려하여 연구했다. 이는 훗날 다차원 구성개념을 주장한 학자들[43][47]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47]이 등장하였고, 현재까지 인지(기술), 행동, 심리의 세 가지 차원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구성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Bricker와 Kerstetter[36]는 경험수준, 기술수준과 능력, 생활의 중심, 지속적인 관여 그리고 장비와 경제적 투자라는 5가지 하위영역으로 개념구성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구성개념의 변화를 도식화 하면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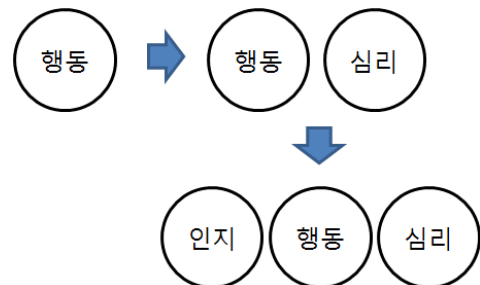


그림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구성개념의 변화 과정

[그림 2]는 McIntyre와 Pigram[45]이 제시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모형이다. McIntyre와 Pigram[45]이 제시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구성개념은 이후 여러 학자들 [43][42]의 연구에서 구체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Bryan[37]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소개한 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떻게 측정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념에 대한 정의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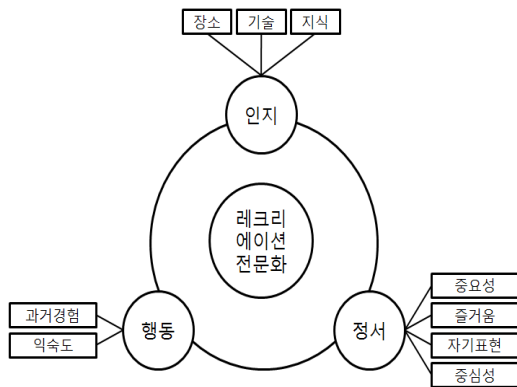


그림 2. The basic components of a recreation specialization loop[45]

그동안 진행됐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행동 분석에 대한 단일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48]. 하지만 행동 개념의 단일 척도는 다른 개념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중 척도를 적용한 연구[44][42][4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의 단일차원 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참가빈도, 과거경험정도 금전적인 투자, 사용하는 장비유형, 보유한 장비의 수 등의 행동적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37][48][40]. 몇몇 연구에서는 생활의 중심성(centrality), 활동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의 수준, 개인의 생활에서 활동이 차지하는 중요도,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수준 등의 태도(Attitude)의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McIntyre와 Pigram[45]은 제품의 관여도 개념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여(enduring involvement)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했다. 하지만 최근의 많은 스포츠 및 여가 학자들은 전문화 정도

를 다원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자들의 심리적 변수를 제외하고 행동적 변수만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할 때는 잘못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40][45]. 이로 인해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전문화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측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Scott과 Shafer[47]는 기존의 단일차원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측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Bricker와 Kerstetter[36]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경험수준, 기술수준과 능력, 생활의 중심성, 지속적인 관여, 그리고 장비와 경제적 투자라는 5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였으며, McFarlane[43][44] 또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며, Scott와 Shafer[47]는 행위의 집중, 기술과 지식, 헌신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Lee와 Scott[42]의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해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단일차원 측정방법 보다는 다차원 측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었으며, 현재 다차원 측정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서적 차원의 측정방법은 활발한 논의가 되어져 왔으며, 다양한 구성개념들이 제시되어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인지적 측면 즉, 기술이나 지식은 학자들 간 논의의 과정보다 찾아보기 힘들었고, 측정을 위한 문항이 매우 단순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유형별 연구동향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1996년 박세혁에 의해 국내 처음 소개된 이후부터 부족하지만 간헐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가학, 체육학, 관광학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총 34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의 분류와 출판된 논문의 수는 [표 1], 연도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 출판 경향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출판 학회지 분포

분류	여가	체육	사회 체육	체육 과학	관광	학위 논문	기타
편수	7	8	3	2	10	1	3
비율	20.5	23.5	8.8	5.8	29.4	2.9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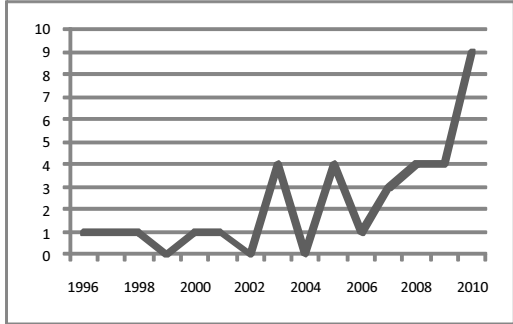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3. 연구유형 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것을 연구유형에 따라서 크게 I, T, Q, U, M, S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유형에 따른 비율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의 유형 별 분류

유형	I	T	U	M	Q	S
편수	4	4	9	10	2	5
비율	11.7	11.7	26.4	29.4	5.8	14.7

1) I형: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소개 및 제언

국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초기 소개 차원의 연구에 해당하며, 박세혁[5-8], 김영재[3]의 연구가 해당된다. 박세혁[5]연구에서는 국내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여가활동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과 마케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박세혁[5][6]은 이때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후속연구[7]를 통하여 모험스포츠 모형개발 및 분석을 위한 이론체계로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소개하였고, 여가스포츠 소비자에 관한 연구[8]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문화를 행

동적 충성도, 기술수준, 스포츠관련 투자비용 등의 세 가지 다면적 구조로 측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박세혁[8]에 이어 김영재[3]도 기능수준, 기구선호, 활동선호, 장소선호 등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 할 것을 제안 하였으며, 차후 연구에서 전문화 정도에 따른 참가성향, 심리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세분화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장 초창기 연구에 해당하는 I형 연구 분류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이론의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적절한 측정도구 개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2) T형: 해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I형 연구에서 처음 소개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당시에 이미 해외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있는 상태였다. 이에 주영환[26], 이진형[19][20], 이연주[15] 등은 해외에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관광학 분야의 연구자인 주영환[26]은 여가 시장세분화에 있어 전문화 컨셉의 활용을 목적으로 당시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해외 연구들을 정리하였으며 최초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연구였다. 이후 이진형[19][20]은 해외 유학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동향을 연대기별로 정리하여 발표했으며 당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에 있어 단일차원과 다차원의 논의를 잘 정리하여 소개했다. 그는 이 개념이 추후 국내 여가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이론적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연주[15]의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이론적 기원을 정리하고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소개했고 당시까지 이루어진 소개차원의 국내 연구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이연주[15]는 국내연구의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3) U형: 단일차원 분석을 이용한 양적연구

초기 I형과 T형의 연구에 영향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해외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한 다차원 측정의 필요성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에서는 단일차원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앞서 박세혁[8]의 연구에서 다면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흐름은 이진형[21], 황선환과 원도연[33]의 연구 이후에서야 바뀌게 된다.

먼저 관광학 분야 주영환과 손대현[27]이 스키참가자의 전문화를 스키경력, 연간 참가횟수, 주관적 기술수준의 합산 값으로 측정하여 초, 중, 상급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이용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라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을 시도한 연구로 마케팅적 시장 세분화의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후 이승철[13][14]이 스키참가자와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광수[12]가 모험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명희와 김남조[25]가 дай버를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적용하였다. 이연주[16]는 배드민턴 참가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였는데 참가기간, 참가시간, 기술수준, 경제적 투자를 단일요인으로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이연주[16]가 사용한 척도는 이후 연구들[17][24][23]에 영향을 미쳤다.

4) M형: 다차원 분석을 이용한 양적연구

해외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다차원적인 분석[41][45]이 이루어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국내연구에서도 다차원 분석이 시작되었는데 관광학 연구자인 이진형[21]이 탐조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 지식, 심리적태도의 3차원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였는데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한국에 발표한 것이었다. 류성옥과 오치옥[4]의 연구도 있었으나 이진형[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낚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국내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이후 황선환과 원도연[33]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국내 스키참가자를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을 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34][28][2]이 다차원 분석을 이용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용된 척도가 McFarlane[43]의 3요인 10문항, McFalane[44]의 3요인 20문항, Lee와 Scott[42]의 3요인 9문항 등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번역과정에서 수정과 문항삭제로 이어지고 있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의 타당성이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 Q형: 질적연구

해외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질적연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국내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질적연구는 김남영[1]의 요가참가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체험을 현상한적으로 해석하였는데 연구대상자들이 어떻게 요가 전문화를 체험하는지와 요가 전문화는 어떠한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어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관광학 분야의 송영민[9]의 연구로 낚시 채널(F-TV)에서 방영된 전문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과 축진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제약, 여가축진의 관계를 탐색하여 추후 연구방향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6) S형: 구조모형을 이용한 변인간의 관계연구

가장 최근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 형태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다양한 변인들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구조모형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다. 가장 먼저 윤영선, 박동규 및 양재혁[11]의 연구에서는 수상레포츠 참가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수준과 위험지각, 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30][31][32][35]가 활발히 이루어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협상의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나,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척도도 U형 연구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국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및 연구방향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제시되고, 이후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국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소개와 제안 단계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실증적인 관계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점이다. 이연주[15]의 연구에서 제안했던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의 발전이 기대된다. 둘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에 있어서 단일차원을 벗어나 다차원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마케팅적 시장세분화의 목적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초기의 연구에서는 마케팅적 시장세분화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는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국내연구의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나타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국내연구에서 최근까지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단일차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 연구의 흐름에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경우 Kuentzel과 McDonalds[41] McIntyre와 Pigram[45] 이후 다차원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에서는 임승현과 조혁준[23]연구에서도 단일차원으로 분석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둘째, 해외에서 개발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 타당성의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몇몇 연구들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수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문항의 번역과정에서 수정과 삭제가 발생해 본래 척도의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의 연구흐름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 척도 사용에 있어서 해외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한 의견의 수렴 조율 과정을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반영한 구성개념과 이에 따른 척도를 개발·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된 척도를 단순 번역해서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동향 분석에 있어서 해외연구들과 국내연구들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해외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연구방법과 연구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특성상 질적 연구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연구자의 다양성이 없다면 이론적 정체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추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문화에 적합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외 척도들 [43][44][42]의 경우에도 행동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외에 인지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Scott과 Shafer[47]가 기술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의 기술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1문항에서 2문항 정도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에서는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지적 차원과 기술적 요소를 보강한 다차원으로 구성된 한국형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연구대상의 다양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외 연구에서는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나 사회체육 참가자 등 연구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각 대상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계열적(종적) 연구방법의 적용이나, 질적연구방법의 적용 등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제시와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2001년에 Scott과 Shafer[47]가 Bryan[37]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연구를 JLR에 투고하였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관련 다양한 학자들(Bryan, Kuentzel, McFarlane 등)의 의견을 함께 게재하여 토론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이 국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유형별 분석 함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의 성과, 문제,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을 볼 때, 현재 국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는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한국형 레크리에이션 척도개발이 시급하다. 그 구성개념과 척도의 타당성을 고민해 보고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후속연구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접근을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본질적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남영, 요가 수행자들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체험에 관한 분석, 기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2] 김동환, 박보현, 이연주, “스노우스포츠 상급자의 스포츠 재미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105-114, 2010.
- [3] 김영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에 측정에 대한 고찰”, 체육연구, 제19권, 2003.
- [4] 류성욱, 오치욱,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장소 애착의 관계: 미국 텍사스주 낚시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0권, 제2호, pp.3-22, 2008.
- [5] 박세혁,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방법 제안”, 한국체육학회, 국제 스포츠과학 학술대회자료집, pp.756-763, 1996.
- [6] 박세혁, “사회체육소비자의 전문화 정도에 따른 마케팅 전략”, 한국사회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06-116, 1997.
- [7] 박세혁, “모험스포츠 모험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연구방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19권, pp.105-118, 2000.
- [8] 박세혁, “여가스포츠 소비자들의 상이한 레크리에이션전문화 정도: 시장세분화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4호, pp.423-432, 2001.
- [9] 송영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제약과 촉진의 의미 분석”, 관광학연구, 제34권, 제3호, pp.237-260, 2010.
- [10] 원형중, 이승민, 박수정, “여가중심사회를 위한 여가교육”,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pp.617-626, 2007.
- [11] 윤영선, 박동규, 양재혁, “수상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전문화수준, 위험지각 및 만족도와 의 인과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1권, 제3호, pp.63-77, 2007.
- [12] 이광수, “모험스포츠 참여자의 전문화와 환경태도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5권, pp.657-664, 2005.
- [13] 이승철, “스포츠센터 소비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스포츠센터에 대한 태도,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2호, pp.237-244, 2003.
- [14] 이승철, “스키어의 전문화와 스포츠 몰입, 미래의 행동의도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5호, pp.411-417, 2003.
- [15] 이연주, “여가활동전문화의 연구동향과 추후 연구방향”, 스포츠과학리뷰, 제1권, 제2호, pp.93-110, 2007.

- [16] 이연주, “배드민턴 참가자들의 여가활동 전문화와 여가정체성 및 행복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1권, 제4호, pp.19-30, 2007.
- [17] 이연주, 조보성, “이석훈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여가활동 전문화와 스포츠재미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3호, pp.377-386, 2008.
- [18] 이영진, 김지선, 박미숙, “관람자 유형에 따른 관광박람회 관람 특성 분석: 전문화 수준에 따른 시장세분화”, 관광연구논총, 제22권, 제1호, pp.165-185, 2010.
- [19] 이진형,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55-466, 2003.
- [20] 이진형,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 연구: 미국의 연구동향과 국내 연구방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28권, pp.67-78, 2005.
- [21] 이진형,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 탐조객에 대한 패널리언”, 관광학연구, 제29권, 제2호, pp.235-254, 2005.
- [22] 이철원, 웰빙을 원한다면 여가를 경영하라, 도서출판 이치, 2005.
- [23] 임승현, 조혁준, “테니스 동호인의 여가활동 전문화가 스포츠재미, 미래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79-189, 2010.
- [24] 전상완, 배광열, 홍이수, “배드민턴 동호인의 여가활동 전문화가 스포츠 재미와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7권, pp.1709-1722, 2009.
- [25] 정명희, 김남조, “모험성 레크리에이션의 통제소재와 전문화 및 위험지각의 관계: 스쿠버다이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0권, 제4호, pp.27-46, 2006.
- [26] 주영환, “레저시장 세분화를 위한 전문화컨셉 활용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9권, pp.179-196, 1997.
- [27] 주영환, 손대현, “스키 이용객의 행동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 관광연구논총, 제9권, pp.272-299, 1998.
- [28] 최성범, “스쿠버 다이버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장소귀속감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3권, 제3호, pp.131-142, 2009.
- [29] 황선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 투자비용 및 기술 수준의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4호, pp.387-395, 2009.
- [30] 황선환, “스키어들의 여가활동 참가정도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0권, pp.811-819, 2010.
- [31] 황선환, “대학생의 여가 동기 유형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2호, pp.47-57, 2005.
- [32] 황선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동기, 여가 제약 및 협상전략의 관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제3호, pp.303-312, 2010.
- [33] 황선환, 원도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따른 스키리조트 선택요인 분석”, 체육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pp.96-105, 2009.
- [34] 황선환, 이문진,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6호, pp.393-402, 2009.
- [35] 황선환, 최홍식, 한승진, “여가계약, 여가계약 협상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974-983, 2010.
- [36] K. S. Bricker and D. L. Kerstetter,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Vol.22, pp.233-257, 2000.
- [37] H. Bryan,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9, pp.174-187, 1977.
- [38] H. Bryan, Conflict in the great outdoors, The Birmingham Publishing Co., 1979.
- [39] W. R. Borg and M. D. Gall, Educational

research, Longman, 1983.

- [40] M. P. Donnelly, J. J. Vaske, and A. R. Graefe, "Degree and range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Toward a typology of boating related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8, pp.81-95, 1986.
- [41] W. F. Kuentzel and C. D. McDonald, "Differential effects of past experience, commitment, and lifestyle dimensions on river use specializ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4, No.3, pp.269-287, 1992.
- [42] J. Lee and D. Scott, "Measuring birding specializati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eisure Sciences*, Vol.26, pp.245-260, 2004.
- [43] B. L. McFarlane, "Specialization and motivations of birdwatchers," *Wildlife Society Bulletin*, Vol.22, pp.361-370, 1994.
- [44] B. L. McFarlane,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site choice among vehicle-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Vol.26, pp.309-322, 2004.
- [45] N. McIntyre and J. J. Pigram, "Recreation specialization reexamined: The case of vehicle 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Vol.14, pp.3-15, 1992.
- [46] C. Oh and R. B. Ditton, "Using recreation specialization to understand conservation suppor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0, No.4, pp.556-573, 2008.
- [47] D. Scott and C. S. Shafer,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 critical look at the constru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3, No.3, pp.319-343, 2001.
- [48] R. B. Ditton, D. K. Loomis, and S. Choi, "Recreation specialization: Re-conceptualization from a social world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4, pp.33-51, 1992.
- [49] D. R. Williams, Relationship to place as a determinant of outdoor recreation preferences,

Unpublished M.S.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1980.

저 자 소 개

이 문 진(Mun-Jin Lee)

정회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여가 · 레크리에이션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 석사)
- 2010년 10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박사과정수료),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 주(Yeon-Ju Lee)

정회원



<관심분야> : 여가 ·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 박사)
- 2010년 10월 ~ 현재 :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시간강사